

NIIGATA IN JAPAN

— 한국 —

Just **70** minutes
from Tokyo

A forgotten Japan



Inspiration for your trip

파우더 스노
일본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니가타에는 많은 스키장이 있습니다.



A Forgotten Japan Just 70 minutes from Tokyo!

도쿄에서 약 70분, 터널을 빠져나오면 도쿄나 교토와는 또 다른 일본이 있습니다. 니가타현은 150년 전 까지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철도망의 발달과 함께 경제의 중심이 태평양 연안으로 옮겨가고,

어느샌가 혼슈 서해안 지역은 경제 발전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이 지역에는 옛 문화와 전통 그리고 옛 풍경이 타임캡슐에 담긴 듯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또 다른 일본이 바로 니가타에 있습니다.



마쓰노야마 온천
마쓰노야마 온천은 구사쓰, 아리마와 함께 일본 3대 약탕으로 손꼽힙니다. 피부 미용 효과가 뛰어나며, 상처를 치료하는 약효가 풍부한 온천을 즐겨 보세요.



비진바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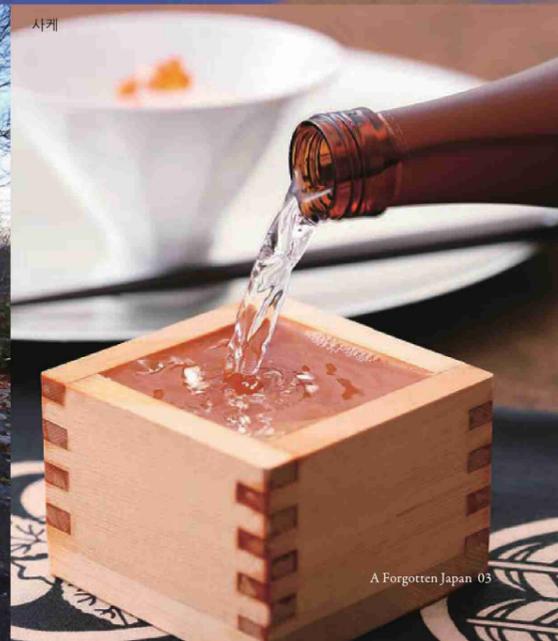
골프장/아테마고원리조트



등산/고렌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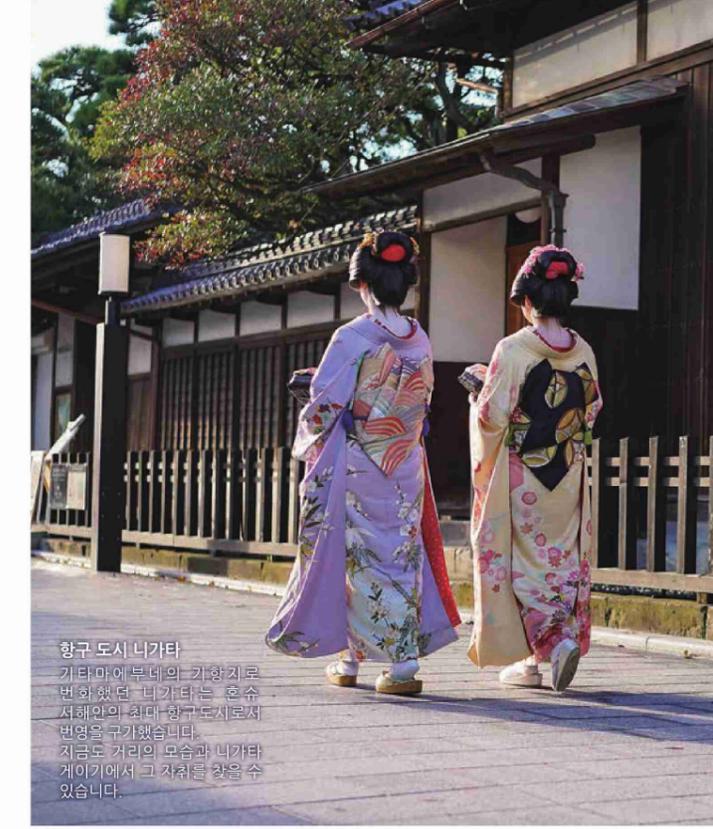


자연의 정취로 가득한 온천/오코노우



사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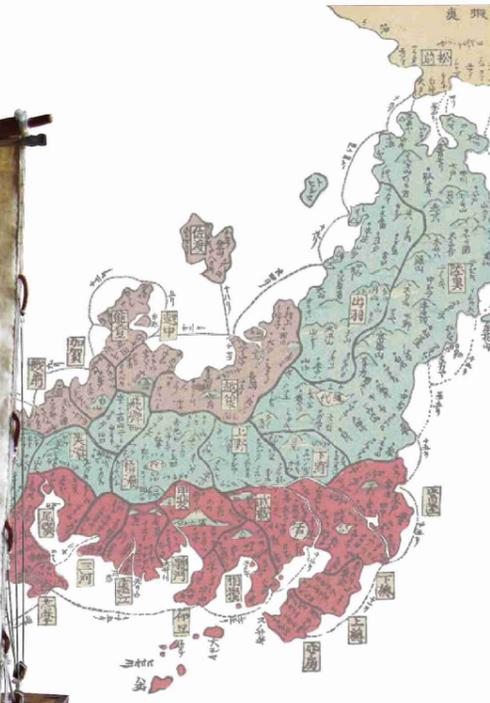
150 years ago Niigata was on an important trade hub with the highest levels of culture and the largest population in Japan.



항구 도시 니가타
기타마에부네의 기항지로
변화했던 니가타는 혼슈
서해안의 최대 항구도시로서
변명을 구가했습니다.
지금도 거리의 모습과 니가타
게이키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슈쿠네기
기타마에부네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일본 제일의 쌀 생산지이자 번성한 항구가 있었던 니가타현은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통망은 기타마에부네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국내외에서 니가타로 수준 높은 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기타마에부네
150년 전까지 홋카이도에서
니가타와 오사카까지 해상을
통해 물류를 수송했습니다.

마키 료코 기념 시대관 소장
인간 국보 노다 후사키치 제작
'기타마에센고쿠부네'(모형)

日本一を支えた豊かな大地と海があまり。

It's always had the rich soil and ocean capable of supporting its inhabitants.



호시토게노 다나다

선조들이 산을 개간하여 만든어논은 계단식 논으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 아침이면 환상적인 운해가 생깁니다.

겨울이면 3m 넘게 눈이 쌓이고, 그 눈 녹은 물은 일본에서 가장 긴 시나노강으로 흘러가 에치고 평야를 일본의 대표 쌀 산지로 만들었습니다. 니가타 근해에서는 풍부한 해산물이 잡히며, 산과 들에서는 많은 야채와

과일들이 생산됩니다. 과거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을 지탱해준 풍요의 땅은 지금도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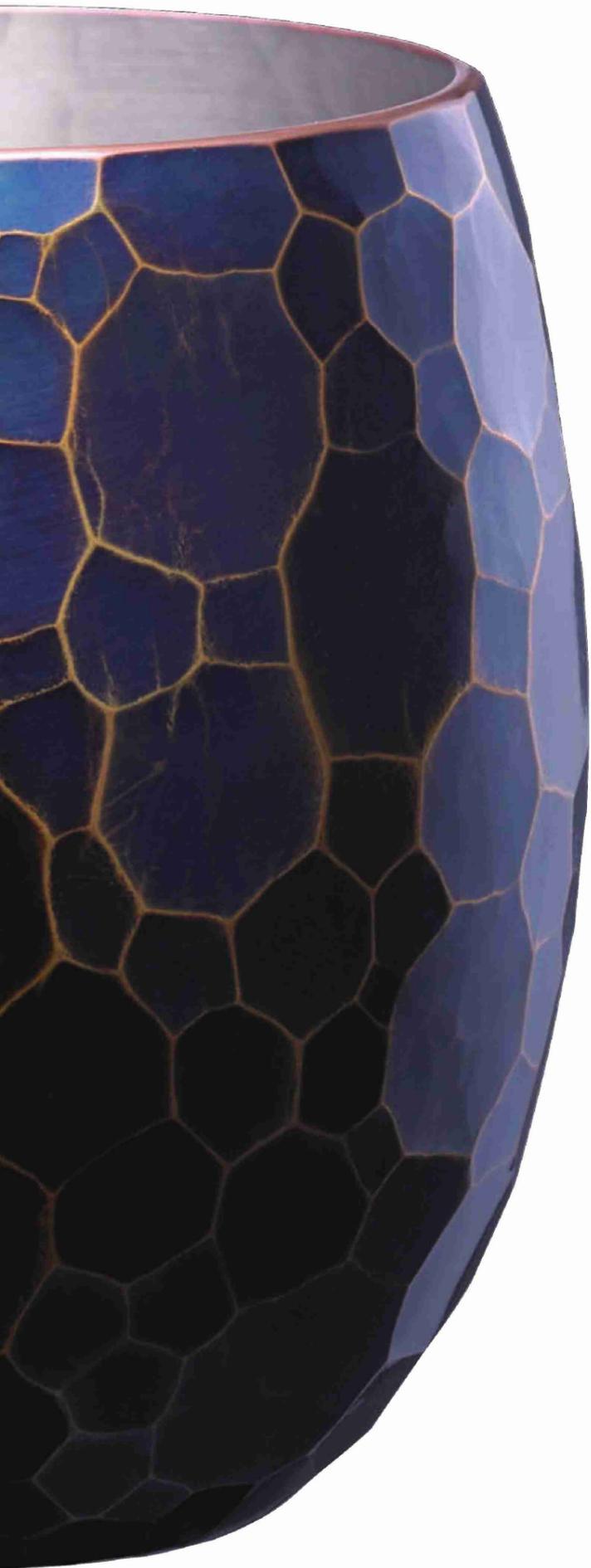
사사가와나가레
긴 해안선을 가진 니가타에서는 다양한 풍경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니가타는 어업도 번창
바다와 접한 니가타는 어업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대형 어선이 니가타의 앞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영양분을 가득 품은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 훌륭한 어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먹거리의 보고 니가타
산, 바다, 평야로 둘러싸인 니가타는 식자재의 보고(寶庫)로 일본의 부역을 책임지는 농, 수산업이 발달했습니다.



| A Forgotten Japan | Excellence

人やモノが
集まり、卓越
した技術が
生まれ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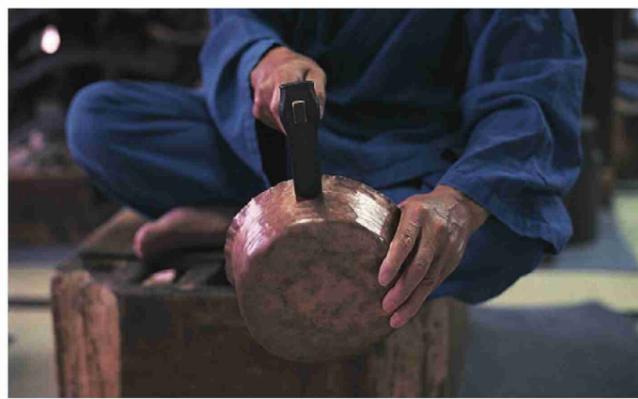
With the cumulation
of people and things,
outstanding
workmanship was
produced.



산조 카지 도장
산조는 일본 금속 가공의 출발점인 '대장일'을 산업의 기초로 삼아 온 지역입니다. 카지 도장에서 장인의 지도로 다양한 대장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에치고 조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최고급품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직물입니다.



쓰이키 동기
쓰바메는 세계 유수의 금속가공 산지로, 그 뿌리는 일본 전통 문 제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은 한 장의 동판을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만들어가는 '쓰이키 동기'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기타마에부네는 물자만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도 함께 실어와 이 지역에 철물과 직물 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전통과 기술은 탁월한 장인의 손을 거쳐 세계에서도 통하는 모노즈쿠리로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기모노 산지
설국의 기후 환경에 맞는 기모노 직물은 니가타의 대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요정 나베자야/ 니가타시
 전통의 맛과 기술, 품격을 이어가는 항구도시 니가타를 대표하는 고급 음식점입니다. 술자리의 흥취를 더해 주는 전통에는 '후루마치 게이기'를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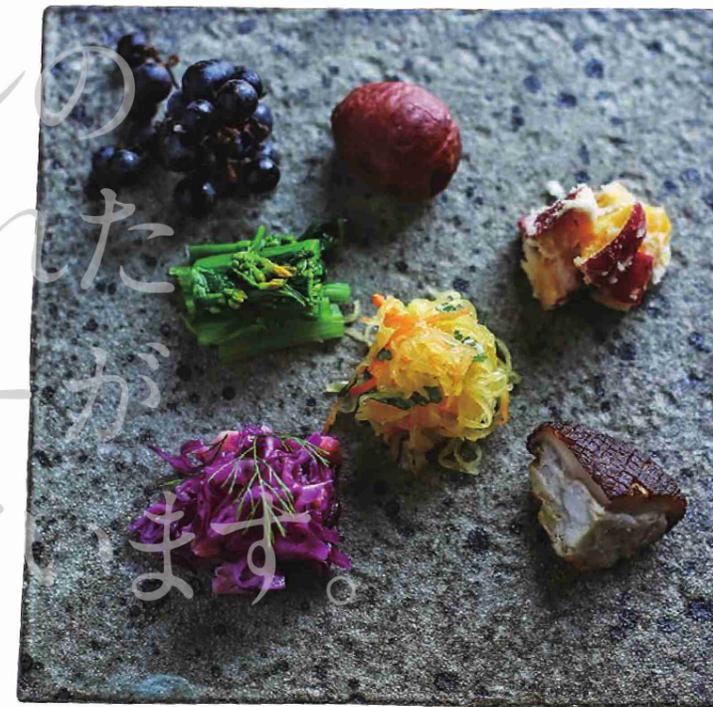
| A Forgotten Japan :: Gastronomy

タイムカプセルの
 ように保存された
 ガストロノミーが
 注目を集めています。

An amazing
 food culture still in
 use almost as if
 preserved in
 a time capsule.



교다이즈시/니가타시
 니가타산만을 고집하여 계절 해산물을 탁월한 기술로 요리하는 생선 초밥집



사토야마 주조/미나미우노마시
 '대지의 축복을 느끼는 것', '식자재의 힘을 느끼는 것'을 테마로 한 우노마 특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온천 료칸

니가타는 먹거리의 보고(寶庫)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는 여행자를 사로잡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은 니가타 식자재의 맛을 살린 선진적인 요리를 탐구합니다. 양조에 적합한 기후환경으로 일본에서 양조장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구라 /쓰키오카 온천 거리
 니가타의 모든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사케를 맛볼 수 있는 곳

Not to be missed!
Art



02



03



04 - 05



01

The resonance of Jomon era pottery from 5000 years ago and modern day art.

8,000년 전 조몬 문화를 꽃피웠던 니가타에는 고대 예술과 현대 예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나노강 유역 곳곳에서 토기와 유적을 볼 수 있으며, '대지의 예술제'와 같은 현대 예술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니가타를 방문하시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국보 화염형 조몬 토기(도카마치시 박물관 소장)
- 겐비 신칸센/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술관
- [내장] 고진 하루카 (아티스트)
- [외관] ©mika ninagawa, Courtesy of Tomio Koyama Gallery
- ▼ Echigo-Tsumari Art Field
- 01 구사마 야요이 [꽃피는 쓰마리]
- 02 토마스 에라 [인간 자연에 다시 들어가다] Photo by Osamu Nakamura
- 03 다시마 세조 [하치와다시마세조 그림책과 나무 열매의 미술관] Photo by Takenori Miyamoto+Hiromi Seno
- 04 시오다 치하루 [집의 기억] Photo by Takenori Miyamoto+Hiromi Seno
- 05 구라가케 준이치 + 일본대학예술학부 조각코스 [말피하는 집] Photo by Kazue Kawase





Not to be missed!
Snow

1

1.파우더 스노/스키장
최상의 파우더 스노를 즐기
기 위해 전 세계의 스키어들이
모입니다.

2.가이카케 온천
자연의 경취로 가득한 바위로
만든 노천온천에서 눈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3.오지라쿠라 바이토
'바이토'는 한 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독특한
축제로, 불꽃과 눈이 빚어내는
경치는 압권입니다.

4.초가집 민가
눈 덮인 초가지붕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世界有数の多雪が生んだ
A different way of life brought about
by some of the heaviest snows in the world.
異日常の世界

니가타는 겨울이면 눈이 3m나 쌓이는 대설 지역입니다.
스키와 스노보드뿐만 아니라 전통행사 등 다양하게 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과 눈을 동시에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Not to be missed!
Experience

- 1 2
- 3 4
- 5

1. 고도
사도를 거점으로 하는 북 공연 예술 단체

2. 북방문화 박물관
농치지 말아야 할 오토로마에서 보는 일본 회유식 경원의 색채

3. 나가오카 마쓰리 불꽃 축제
일본 3대 불꽃놀이 중 하나

4. 오지야 후센잇키
대형 열기구가 새하얀 설원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입니다.

5. 후지 록 페스티벌
/나에바 스키장
국내외 200여 팀의 뮤지션이 참가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야외 음악 이벤트
Photo by ©宇宙大使☆スター



新潟ならではの体験は
Your unique Niigata experience
will be your lifelong memory
あなたの一生の思い出になる



Facts About Niigata

니가타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음식을 비롯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과 문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이 여럿 있습니다. 또한 니가타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곳입니다. 꽃이 만개하는 봄,

바다와 강 그리고 불꽃놀이가 눈부시게 빛나는 여름, 벼이삭이 황금 물결을 이루는 가을, 눈 덮인 겨울처럼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History & Culture



사이후쿠치 개산당



사도 금산



야히코 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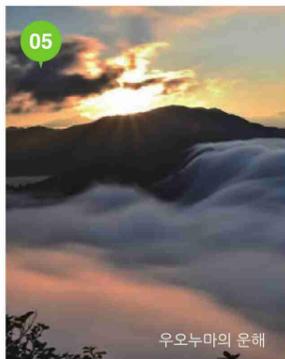


오지야 투우장 소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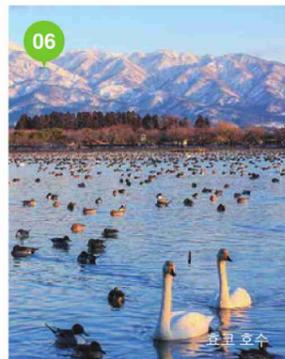


신칸센
철도
고속도로
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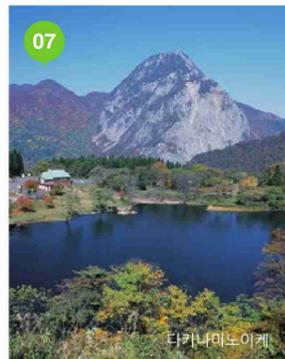
Nature



우오누마의 운해



요코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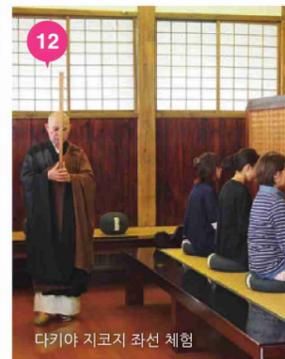


다카나미노이케

Things to do



비량(秘湯) 가와하라노유



다키야 지코지 좌선 체험



나에바 드래곤들라

Food



고시히카리



에치고히메



시오야키사케(연어 자반)

Festival



사도 다카기노



쓰가와 어우 혼레 행렬



신랑 던지기 숲 칠하기 축제

니가타까지의 교통

항공편

[국제선]

- 서울 출발 — 2시간
- 상하이 출발 — 2시간35분
- 하얼빈 출발 — 2시간10분
- 타이페이 출발 — 3시간10분

[국내선]

- 나리타 출발 — 1시간 5분
- 오사카 출발 — 1시간 5분
- 나고야 출발 — 55분
- 삿포로 출발 — 1시간10분
- 후쿠오카 출발 — 1시간35분

니가타 역 남쪽 출구에서 30분 간격으로 공항 리무진 버스가 출발합니다. 소요 시간은 30분입니다.



- 국제선
- 국내선

- 고속도로
- JR 신칸센
- JR선
- 항로



JR 신칸센

도쿄 출발	
니가타 역	100분
에치고유자와 역	70분
조에쓰묘코 역	120분

| 사도까지의 교통 |

제트포일 또는 페리 이용

니가타 출발 료쓰 도착	
제트포일	65분
페리	2시간30분

나오에즈 출발 오기 도착	
고속 페리	1시간40분

데라도마리 출발 아카도마리 도착	
고속선	65분

발행처
 니가타현 국제관광진흥과
 4-1 Shinko-cho, Chuo-ku, Niigata City, Niigata Pref. 950-8570
 Tel. +81-(0)25-280-5968 ngt150020@pref.niigata.lg.jp



◀ Enjoy Niigata
<http://enjoy.niigata.com/en/>

うまさぎっしり
新潟
 NIIGATA - KEN